

## 삼성전자, '삼성앱스', 갤럭시S 인기 타고 국내 다운로드 400만건 돌파



신종균 사장

삼성전자는 15일 자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삼성앱스'에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받은 건수가 누적기준으로 4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삼성앱스'는 지난해 12월17일 SKT의 T스토어에 '숨인숍' 형태로 국내에서 본격적 서비스를 시작했다. FUN, 게임, 만화, 생활·위치, 어학·교육 등 총 5개 카테고리별로 현재 약 700여 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있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갤럭시S의 인기에 힘입어 다운로드 건수가 치솟고 있다.

국내 갤럭시S 구매자의 82%가 '삼성앱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일간 다운로드 순위를 보면 무료는 얼굴인식 관상(1위), 아스팔트5(2위), 쿠루쿠루(3위), 동안배틀(4위), 유료는 셀프음주측정기(1위), 메이크업뷰티(2위), 한글성경(3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29만건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관상 애플리케이션은 얼굴의 특징을 분석해 관상 정보를 제공, 국내 소비자들의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친구끼리 누가 더 동안안지를 카메라로 찍어 겨루는 '동안배틀', 친구, 가족, 연인끼리 사진을 찍어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알려 주는 '얼굴인식 싱크로울'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교육열이 높은 국내 상황을 반영해 공무원/경찰/서울시/교육 행정직 시험 관련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애니메이션으로 동화를 감상하는 '다음 키즈짱 공룡동화' 등도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시의 실시간 버스, 지하철정보, 대중교통 최단거리 검색 등을 제공하는 '서울 교통', 각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자체 등에 언제, 어디서나 민원신청이 가능한 '국민 신문고' 등도 인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 것이 유효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



외에서 출시된 웨이브폰의 바다향 애플리케이션은 2달 만에 누적 다운로드 600만건을 기록하고 있다.

## LG전자, 레드닷 어워드 최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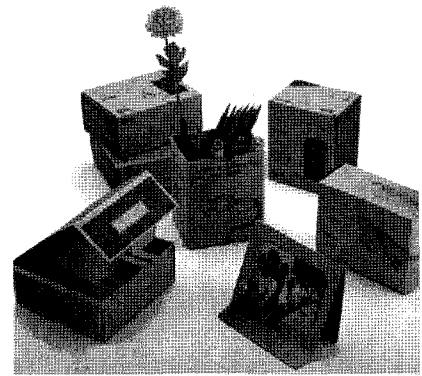


구본준 부회장

LG전자가 세계 권위 디자인상인 '레드닷'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최근 '레드닷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2010(reddot award : communication design 2010)'의 '포장부문'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랑프리(Best of Best Grand Prix, 이하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올해 국내기업 가운데 그랑프리를 수상한 기업은 LG전자가 유일하다. 그랑프리는 '포장(Package)', '광고(Advertising)', '잡지 및 일간지(Magazines & Daily Press)', '디지털 게임(Digital Games)', 'TV와 영화(TV & Cinema)'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한 60개 작품들 가운데 부문별로 한 개씩만 주어지는 최고상이다.

LG전자가 수상한 작품은 '재사용 친환경 포장(Reusable Eco Package)'으로 휴대폰 포장 상자 내부에 '지구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멸종위기 동물 소개' 등 녹색 메시지를 담았다.

이 휴대폰 포장 상자는 ▲재생용지 사용, ▲공기름 인쇄, ▲접착제 없는 포장재 등 친환경 재질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휴대폰 포장 상자를 뒤집으면 수납함, 연필꽂이, 액자 등 다양한 용도로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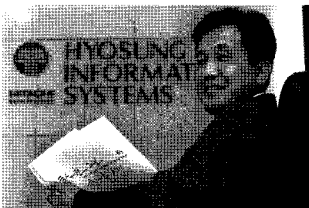
해는 '레드닷 커뮤니케이션'에서만 44개국에서 6천 개가 넘는 작품들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LG전자 디자인센터 이건표 부사장은 "세계 최고 디자인 대회서 고객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제품 외관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까지 고려하는 디자인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드닷'은 IF,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제품(product),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컨셉트(Concept)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포장부문'은 이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해당된다.

### 대덕전자, 해동과학문화재단, 인하대에 발전기금 3억원 전달



대덕전자(주) 김정식 회장(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인하대에 발전기금 3억원을 전달하였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지난 2010년 10월에 인하대와 장학금 지원 협약식을 갖고 2011학년도 1학기부터 1년에 8명의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해동과학문화재단은 이·공학 연구 진흥을 위해 대덕전자(주)의 해동 김정식 회장이 1991년 설립했으며, 해동상 시상과 장학사업, 교육시설 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해동장학금은 대학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5개 대학(40명), 12개 고교(60명)에서 내년부터 7개 대학(56명), 12개 고교(120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노틸러스효성, 전자세금계산서 앱 출시



류 필 구 대표

노틸러스효성(대표 류필구)이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모바일 스마일EDI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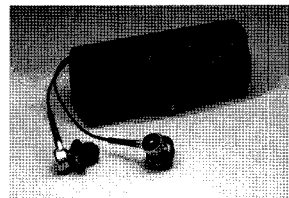
드 운영체제(OS)기반 스마트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조회, 승인, 반송, 취소, 국세청 전송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스마일EDI는 2002년부터 노틸러스효성이 제공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을 위한 표준인증 기술 1호를 획득한 바 있다. 노틸러스효성은 앞서 전사적자원관리(ERP), 판매시점관리(POS), 온라인쇼핑몰에 스마일EDI를 연동



한 데 이어 스마트폰 전자세금계산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 내달부터 판매재고관리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사용 기업들의 제반 업무를 간

소화 해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관리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상순 노틸러스효성 팀장은 "2011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앞두고 외부업무가 많은 개인사업자나 영업사원 등이동이 잦은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계산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 크레신, 하이마트 입점기념 이벤트



이어폰·헤드폰 제조업체 크레신(대표 오우동)은 전자제품 전문점 하이마트 입점을 기념해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1+1 이벤트'를 연다. 이 이벤

트는 하이마트 내 크레신 매장에서 프리미엄급 제품을 사면 최신 제품을 추가로 주는 행사다. 10만원대 미만의 '피아톤(PS20, PS210)' 브랜드를 구입하면 조개 껍질 모양의 이어폰 '조개(Shell)'를 공짜로 증정하고 20만~30만원급 '피아톤(MS300)' 브랜드를 구입하면 보송보송한 스폰지 느낌의 '파스텔(Pastel)' 헤드폰을 준다. 30만원 이상인 '피아톤(PS500, MS600)' 브랜드를 사면 '디스크(Disc)' 헤드폰을 준다. 행사는 하이마트 서울 압구정점과 대치점, 분당 아탑점과 오리점, 수원 시청점 등 5곳에 진행된다.

### 잘만테크, 그래픽카드 듀얼팬 차별화 경쟁, 잘만 VF2500 '대세' 떠오르나



이영필 대표

중·고급형 그래픽카드 제품을 중심으로 쿨러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쿨러 디자인과 발열 억제 성능에 소비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발열이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제조사는 제품의 발열과 성능에 맞는 쿨러를 선택한다. 현재 대부분 제조사는 AMD와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제품 레퍼런스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AMD 및 엔비디아가 내놓는 레퍼런스 쿨링 솔루션은 기본 설정된 그래픽카드 발열에 맞게 설계된 경우가 많아 실제 운용에 한계가 있고 경쟁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유통사는 실제 판매가



많이 이뤄지는 주류급 제품을 위주로 쿨러를 교체해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자체 개발된 고성능 쿨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레퍼런스 쿨러보다 조용하고 풍량이 넉넉해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올리는 오버클럭을 시도해도 안정성이 확보되는 이유에서다. 레퍼런스 쿨러의 성능이 다소 낮을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도 한 몫 했다. 그 중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은 듀얼 냉각팬 구조의 쿨러다.

한 개의 냉각팬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데다 눈에 띄고 소비자 인식도 좋기 때문인데, 특히 잘만이 선보인 VF2500 제품이 중급형 이상의 제품군에서 대세를 떠오르고 있다. VF3000의 소형화 제품인 VF2500은 현재 지포스 GTX 460, 라데온 HD 6800 시리즈를 중심으로 채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일부 그래픽카드 제조사 자체 개발한 듀얼팬 쿨링 솔루션이 있지만 잘만의 쿨러도 성능과 디자인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이다. 현재 잘만 VF2500 쿨러는 렉스테크놀러지와 이애크, 애플루트코리아 등이 유통하는 지포스 및 라데온 그래픽카드에 채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렉스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최근 쿨러는 성능 외에 소비자 관심을 끌기 위한 요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성능을 요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듀얼팬 방식의 그래픽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어 중·고급형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좋은 잘만 쿨러 라인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잘만테크 관계자는 "VF2500이 현재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만 생산되고 있지만 향후 일반 판매용 제품으로도 선보일 예정이며, 계속 성능과 디자인이 개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채용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심택, 키코 미결제 잔액 조기청산완료



전 세 호 대표

심택은 21일 2010년 12월말 이후 도래하는 통화옵션 상품 키코의 잔여 환전물량 잔액인 2억 2900만달러를 원달러 평균환율 1,151원에 모두 중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환율변동폭에 의해 등락을 거듭하던 파생상품관련손익 및 파생상품 부채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키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불확실성도 사

라지게 됐다. 회사측은 "기존에 남아 있던 키코 포지션은 환위험 회피목적이며 매출의 30% 미만 이어서 현금흐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면서 "그러나, 주주가치 및 회사신뢰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489억원 규모의 조기청산을 이번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심택은 향후에도, 고부가가치 제품비중 확대 및 다변화 된 글로벌 고객사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성장엔진을 확보하여 반도체용 PCB산업에서의 세계 1위 지위를 굳건히 유지할 방침이다.

### LS엠트론, 심재설 대표 한경 '테크노 CEO상' 수상



심 재 설 대표

심재설 LS엠트론 대표(57)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정한 '올해의 테크노 CEO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테크노 CEO상'은 과학기술 혁신과 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공계 출신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9회째를 맞는다. 시상식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심 대표는 LS엠트론의 각종 혁신적 제품 개발을 직접 지휘했다. 심 대표는 세계 최초로 정격 전압 3볼트(V)에서 구동하는 3000 패럿(F)급 초고용량 전기이중층콘덴서(EDLC)를 개발했다. EDLC는 고속 충·방전이 가능한 콘덴서와 대용량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2차 전지의 중간적 성격을 띤 제품으로 하이브리드 버스나 중장비, 전자제품 및 조명기기 등에 쓰이는 고급 소재다. 그가 개발한 제품은 기존보다 에너지밀도를 23%가량 높인 것이 특징이다. LS엠트론은 이를 통해 2013년께 1000억달러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 대표는 "선도적 기술개발을 하지 않은 채 과거의 모방 전략에 안주해선 성장할 수 없고, 양산기술에서 앞서더라도 원천기술에서 밀리면 미래가 없다"며 "기초과학 연구조직과 생산 기술 개발조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 최초로 하수 폐열 등



을 동력으로 하는 대형 터보열펌프 개발도 주도했다. 심 대표는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산업계가 더 많이 채용해 이들이 협력과제를 통해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금성사(현 LG전자)에 입사했으며 LG전자 전기상품기획실장·개발지원실장, LS전선 기계사업본부장·부품사업본부장을 지내고 작년 1월부터 LS엠트론 대표를 맡고 있다.

**가온미디어, 임직원 성금으로 사랑의 쌀 전달**



임 화 섭 대표

가온미디어(대표 임화섭)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회사 임직원과 시청 문화체육복지국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가온미디어는 임직원들의 성금과 회사 출연금으로 구매한 사랑의 쌀 100포대(개당 20kg)를 시청 주민

생활지원과의 도움을 받아 관내 31개 주민센터로부터 추천 받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가온미디어 임화섭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게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 사랑의 쌀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가온미디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온미디어는 국내외 불우아동 지원 및 장학사업, 인근 경로식당 정기 배식활동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휴맥스, '매출 1조원 클럽' 가입 눈앞**



변 대 규 대표

국내 벤처기업 1세대로 꼽히는 셋톱박스 업체 휴맥스가 올해 처음으로 '매출 1조원 클럽' 가입이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휴맥스는 지난달까지 9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달까지 1조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창립 21년째인 휴맥스는 전체 매출의 90%를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수출형 기업이다. 1989년 변대규 대표 등 6명이 가요반주기 등을 생산하는 건인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출발, 1998년 휴맥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셋톱박스 생산에만 주력하며 대표적 우량 벤처기업으로 줄곧 성장해왔다. 현재 휴맥스는 케이블TV와 인터넷 TV(IPTV) 등에 쓰이는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생산 모토로라, 톰슨, 페이스 등 세계적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휴맥스의 성공 비결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 우선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시장을 겨냥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축적된 자본이 없고 규모도 작았지만 무모하리만큼 글로벌시장을 기반으로 회사를 키우겠다고 결정했다. 국내에서 돈을 번 후 그 돈으로 국외시장 개척에 나선 대부분의 다른 한국 기업과는 달랐다. 현재 휴맥스 수익의 98%는 유럽과 미국 등 국외에서 거둬들인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한 우물 파기다. 한국의 다른 많은 기업과는 달리 셋톱박스라는 한 품목에 전력투구했다. 국내 많은 중소기업이 특정 시장에 진출해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지만, 휴맥스는 한 품목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글로벌시장에서 생존 확률을 높여줄 것으로 판단했다. 셋톱박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정용 CD 반주기 사업 등 기존 사업을 모두 접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셋톱박스에만 집중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기술 변혁기를 기회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휴맥스는 사업 초기 디지털 기술이 아날로그 가전과 결합되면서 기존 산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휴맥스는 내년에는 차량에 정보기술(IT)을 결합시킨 '카인포테인먼트(Car Infotainment)' 분야에 새롭게 도전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셋톱박스와 자동차에 부착하는 소형 TV를 통해 일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